

도의회 예결특위 2017회계연도 결산

도교육청 추결 심사 돌입 미집행예산 6000억원 달해 이월·불용사업 집중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7일까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교육청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7년 세출결산액 3조 2,962억원 중 2조 9,960억원을 집행, 3,002억원(9.1%)을 미집행해 2,080억원은 이월, 922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이 많았고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발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방학기간 공사가 많아 집행이 부진했으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 사업은 대부분 이월해 문제가 됐다. 또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 6,0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894억원(8.7%)이 증가했다. 교육청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과를 조정,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577억, 교육복지 지원 189억,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6억, 학교 교육여건 개선 692억, 지방채 상환 765억, 인적자원 운용 및 교육행정 일반 23억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결산 심사(도→교육청) 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결산 심사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

이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은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김대오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의 실행실태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고 도교육청 추경예산의 경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삭감, 도내 어린이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찾은 민주당 지도부

이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오전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 이원재 행복도시 건설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여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논의키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남북 3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 쟁점 조율을 나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판문점선언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내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정부

로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문제로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회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해가기로 했다"며 "이 문제로 3차 회담 앞두고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 하지는 말자는 데에 대해 함께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해폐기 등 실질적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을 통해 핵 폐기 등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는 상황이 온다면 국회 차원에서 도당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

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며 "그런 관점에서 비준 동의안 가지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단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표결에 대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쪽(한국당)은 끝나고 하자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원활하게 되기는 힘들

다"고 했다. 단 "외통위에 회부해서 잘되면 정상회담 전에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보내면 (논의를) 하게 돼 있다. 외통위에서 논의하게 하자,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했다. 3차 정상회담에 여야 원내대표단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안간다"고 했다. 다만 "평양에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오면 홍 원내대표가 단장이 돼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이라고 여지를 뒀다. /뉴시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사회적 약자 정책 개발 등 시민복지 증진 높게 평가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총무위원장·사진)은 10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부문을 수상했다.

이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격려하고 더 좋은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난 7월 대상자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수상자 한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수상 소감에서 한명숙 의원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받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주승용 "자살,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국회 실천 결의안 발의



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하루에 36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며 "자살은 사실상 100%의 인재"라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자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사진) 국회의원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소속 국회의원 61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2개국 중 14년째 자살률 1위다. 주 부의장 측은 자살이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 하에 자살로부터의 국민 생명 보호를 국가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결의안 발의를 추진했다. 결의안은 자살이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하고,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정부의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자살위험 국민치료·지원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총괄·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 의무가 포함됐다. 자살예방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김 원내대표는 "자살예방과 관련해 자살 시도 예상자에 대한 병원과 학교,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들 간의 정보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현재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종합적인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9월 정기국회를 거론,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자살예방 관련 여러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 예산이 연 8000억원대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